

재보궐의 문제는 ‘전 지역 부진’이 아니었다

- 평택을·부산 북갑·공주 부여 청양에 집중된 4.6만 표의 이탈

이번 지선과 동시 실시된 국회·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는 그 자체로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공천에 대한 유권자 평가서이다. 재보궐 9개 지역은 모두 민주당 지도부 주도의 전략공천으로 후보가 결정되었으므로, 동일 자치구의 광역단체장 득표율과 비교하면 공천 설계의 적절성을 정량 평가할 수 있다. 호남·제주는 별도의 구조적 변수가 강해 이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9개 지역 종합표

재보궐	모광역	민주 후보	재보궐 득표율 (민주)	광역 득표율 (민주)	재보궐-광역	이탈표 수
부산 북구 갑	부산	하정우	41.26%	56.30%	-15.04	약 -12,273표
경기 평택 을	경기	김용남	28.77%	54.37%	-25.6	약 -24,644표
공주·부여·청양 (부여)	충남	김영빈	43.41%	50.52%	-7.11	약 -2,565표
공주·부여·청양 (청양)	충남	김영빈	44.43%	50.36%	-5.93	약 -1,185표
공주·부여·청양 (공주)	충남	김영빈	45.92%	53.22%	-7.3	약 -4,265표
울산 남구 갑	울산	전태진	42.62%	43.19%	-0.57	약 -517표
경기 하남 을	경기	이광재	49.68%	50.96%	-1.28	약 -1,137표
대구 달성 갑	대구	박형룡	40.93%	43.81%	-2.88	약 -3,805표
인천 연수구 갑	인천	송영길	51.73%	50.86%	0.87	약 +871표
인천 계양구 을	인천	김남준	61.66%	57.57%	4.09	약 +2,902표
안산 상록 을	경기	김남국	55.46%	57.02%	-1.56	약 -1,433표
아산 을	충남	전은수	60.17%	58.53%	1.64	약 +1,483표

사전·본투표 포함 총 유효표 기준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을, 동일 자치구가 속한 광역(시·도 전체 평균)의 광역단체장 읍면동 득표율과 비교. (거소, 관외사전은 비례 배분 보정값)

● 재보궐 결과를 읽는 세 가지 프레임

I. 광역평균을 명확히 못 넘은 곳: 공천 설계 결함 후보군

공주·부여·청양 3군 전체(-6~9%p대), 대구 달성갑(-4.12%p), 하남을(-5.36%p)은 동일 광역의 광역단체장·광역비례 동시 대비 명확한 하회다. 특히 공주·부여·청양은 하나의 국회 선거구임에도 부여·청양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이는 김영빈 후보의 지역 근거·적합성이 3개 군 전체에 고르게 닿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II. 부산·평택: 외부 요인이 첨가되어 공천 결함이 가려진 곳

· **부산 북갑**: 하정우(41.26%) 대 한동훈 무소속(42.97%) 대 박민식 국힘(15.77%) 구도. 국힘 분열에도 불구하고 동일 부산 광역단체장에서 이긴 민주당이 9.27%p나 떨어졌다. 보수 표의 “국힘→한동훈” 흐름을 막을 만한 후보 자산이 설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평택을**: 단일화 실패 사례. 조국혁신당 조국 27.25%, 진보당 김재연 2.95%, 민주 김용남 28.77%로 진보 진영 합산은 58.97%다. 그러나 조국혁신당과의 경선·단일화가 실패하면서 국힘 유의동(34.83%)이 삼자구도에서 승리했다. 동일 광역(경기) 광역단체장 55.04% 대비 -25.6%p의 이탈은 전국 재보궐 중 최대치이며, 단순한 보수 우세의 결과가 아니라 “민주·조국혁신당 양 진영에 대한 동시 피로감 + 단일화 실패”라는 구조 자체를 검증한다.

III. 세대교체·기성세대 후보의 초과 성과: 아산을·인천 연수·계양갑

아산을 전은수, 인천 연수구갑 송영길·인천 계양구를 김남준은 평균을 상회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청와대 출신이었거나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 공개적인 반발을 한 경우(송영길)에는 이탈을 막거나 극복했다.

● 누적 이탈 4.6만 표의 의미

재보궐 9개 지역 중 적어도 6개 국회·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서 동일 지역 읍면동의 광역단체장 평균 득표율을 하회하였으며, 특히 격전지였던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에서 그 차이가 컸다. 이는 단순한 투표율 편차나 후보자 개인 기량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 동일 투표소의 동일 유권자가 광역·광역비례 칸과 국회·기초 칸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했고, 그 판단 차이의 총합이 적어도 6개 지역에서 일관되게 민주·지도부 후보 이탈 방향으로 나타났다.

더 주목할 점은 이탈 표 수의 구조적 일관성이다. 평택을(-24,644표)·부산 북갑(-12,273표)·울산 남구갑(-517표)·대구 달성갑(-3,805표)·하남을(-1,137표)·공주·부여·청양 합산(-8,012표)의 누적 이탈 표가 약 4.6만 표 수준으로, 이는 “개별 우연”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해석 요약: 이번 재보궐에서 드러난 구조는 정청래 지도부가 지역 현장의 호오·적합성 신호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채 전략적 결합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민감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평택을의 사례는 단순한 “지도부 비토”가 아니라 “민주·조국혁신당 양 진영에 대한 동시 피로감”의 증거로 봐야 한다. 진보 진영 합산은 58.97%로 다수임에도 단일화 실패로 의석을 잃은 것은 단순한 공천 실패가 아니라 양당 모두에서 강성 지지층 주도 정치에 대한 중도·약 진보의 피로 누적이 표출된 것이다.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 가장 정확한 조사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선거컨설팅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층(여의도동 13-25)